

# 가족과 이웃 포교운동 전개

## 진각종 총금강회, 우수 조직 표창·포교비 지원

대한불교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가족과 이웃을 포교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진각종 신교도 단체인 총금강회(회장 원당)는 올 4월부터 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족과 이웃 포교운동'을 적극 펼쳐기로 했다.

총금강회는 우선 내부부터 그동안 활동이 미흡했던 금강회 조직을 비롯해 청년회와 학생회, 자성학교 등 신행조직 실태 파악과 포교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현수막과 포스터,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해 신교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금강회는 각 지부별로 당해 심인당 주교들과 협의해 공부방, 불교 교양대학, 노인대학 등의 개설도 서두를 생각이다.

이외에도 심인당 주변 독거노인 방문, 자성일(일요일) 골목길 청소하기 등의 사회봉사활동, 어버이날, 성년의 날, 생일 등 축하카드 발송 등 이웃과 가족이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총금강회는 이와 함께 전국 금강회를 4개구로 분류해 계획과 목표수립의 적정성,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적극성 등

을 명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기별 금강회 임원들과 각 지부장 등이 상호 평가한 뒤 우수 심인당 금강회 3곳을 선정해 포교비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국 최우수 금강회로 선정되면 내년 장교절(6·14일)에 통리원장 표창과 함께 포교비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전국청년회도 창립 30년 역사를 재조명한 책 <진정 3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총금강회장 원당 각자는 "내년이 창단 창종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기에 창단 발전에 일조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며 "가족과 이웃의 포교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각 심인당 스승님들과 신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 진각종, 부경진각회 창립

진각종 부산, 경남지역 각자(남자 신도)들의 모임인 부경진각회는 3월 21일 창립 총회를 열었다. 6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는 부경진각회는 부산 경남 지역의 대사회적 봉사과 진각종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부경진각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많은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http://cafe.daum.net/jingakcom)해 회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총금강회와 진사모(진각종을 사랑하는 모임) 등교도 연대해 종단이 추진하는 각종 불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회당학원에 임용돼, 진선여중교 행정실장을 역임했고, 1991년 위덕대학교 개교 설립 과정에 크게 공헌했으며, 총무과장, 학생과장, 교무과장, 입학팀장, 학생서비스센터장, 생활관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2월부터는 행정처장으로 대학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육, 신중자법, 권공, 퇴공, 시식, 봉송의 순서로 열린선원 법당에서 진행됐다.

행사가 끝나뒤에는 참석자 스님들이 시장 상점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시장의 변용을 기원했다.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천도제는 돌아가신 영가들이 새로운 육신을 얻어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발원하기 위해 지내는 의식인데, 부처님께 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던 날인 열반제일에 종교를 초월하여 지역주민들이 합동으로 조상 천도제를 지내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재래시장 활성화 선도제

### 태고종 열린선원

태고종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은 3월 14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 역촌중앙시장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동천도제를 봉행했다.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합동천도제는 부처님과 보살님, 도량을 옹호하는 신중과 영가를 맞이하는 의식인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 관

## 천태종 삼광사 주지에 영제 스님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스님에 영제 스님(前 성통사 및 마산 삼학사 주지·사진)이 임명됐다.

前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마산 삼학사 주지로 자리를 옮겼다.

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춘광 스님)은 3월 14일 부산 삼광사 등 9개 사찰에 대한 주지인사를 단행했다.

진주 월경사와 함양 청양사 주지에는 안산 스님(前 흥천 강통사 주지), 흥천 강통사와 인제 강화사 및 기린 기흥사 주지에는 용문 스님(前 울진 죽청사 주지)이, 부산 광명사 주지에는 갈웅 스님이 임명됐다.

또한 총무원 책임부전에는 화산 스님(前 청주 명장사 및 서울 명락사 주지)이 확정됐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주지들은 3월 16일 도용 중정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주일 기자



## 업해식 행정처장 대통령 표창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업해식(법정·보덕심인당·사진) 행정처장이 30년 교육발전의 공을 인정받아 2005년도 국민교육유공자로 선정돼 3월 20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업해식 행정처장은 1977년 학교법인

## 미륵종, 日 성지순례 성황

200여명 교토·나라 등 방문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이 일본의 교토(京都)와 나라(奈良) 등 불교유적지에서 해외성지순례를 실시했다. 3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 성지순례에는 200여명의 종도들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순례 첫날인 7일에는 한일 정겨워객선 팬스타호에서 '현해탄용왕수륙대제'를 봉행했다. 또 일본진언종의 총본산인 고야산 공고부지(金剛峯寺)를 방문, 미륵종과 공고부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



동대사(東大寺)의 청동대불이 모셔져있는 본당으로 입장하는 미륵종 순례단. 영남 경남 서부 지사장

# “법회 시간이 기다려져요”

## 찬불가 노래방기기 전달받던 날 상호정사 등 6곳 축제 분위기



강원도 인제 내린천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구릉위에 위치한 호국 상호정사. 3월 15일 10여명의 장병들이 수요법회가 있는 시간보다 일찍 법당에 모였다. 이들이 평소보다 일찍 법당을 찾은 이유는 바로 찬불가 노래방기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법당에 기증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법당을 찾았다.

법당 뒤편에 설치된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보자 장병들은 본체와 모니터가 일체형으로 된 최신 기기를 만지며 신기해 한다. 전광병 군중병이 찬불가 노래방기기의 전원을 켜자마자 10여명의 장병들이 탄성을 질렀다. 초기 화면이 전통 사찰의 전경 등 불교 관련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유한일 상병은 “노래방기기에서 불교관련 영상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며 “불교 영상과 함께 찬불가를 노래방기기에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놀라기만 하다”고 연신 웃음을 짓는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는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재)보덕학회가 노래방기기를 기증했고 (주)금영이 좋은벗 풍경소리와 함께 찬불가 120여곡을 노래방 반주기에 삽입해 이번엔 처음으로 군에 보급하게 됐다.

호국 상호정사와 함께 이날 강원도 화천, 인제, 양구 지역 전방 연대급 부대 법당인 관음사, 보현사, 연승사, 장안사, 향로암 등 6곳에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전달됐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는 엘프, 스피커 등 주변기기가 하나의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형 기기로 이동이 간편해 법회시나 부대 위문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의식곡이 모두 삽입돼 있어 법회시에 반주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장병들의 신행활동



호국 상호정사 불자 장병들이 3월 15일 수요법회에 앞서 찬불가 노래방기기로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보며 연신 웃기만 한 부대급 일병이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방이 적힌 책자에서 찬불가 '오늘은 좋은 날'을 선택하자 함께 있는 장병들이 일제히 박수치며 신나한다. '오늘은 좋은날 부처님 오신날~'

찬불가가 도량에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병들은 박수를 치며 김기병 상병에게 다음곡을 선택하라고 노래 책자를 넘긴다. 김상병은 일반 가요인 '이별이 이별'을 선택했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함께 노래를 부렀던 배제성 일병은 “법당이 경건하고 존엄한 공간인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러니 너무 좋다”며 “앞으로 법회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다”고 방긋 웃는다. 글·사진=김두식 기자

##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 호국수심사 장병 위문법회

달리는 큰 법당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회장 변용규)가 3월 12일 강원도 최전방 제1679부대 호국수심사에서 통신원 가족과 수심사 신도회, 장병 등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변용규 불자회장은 법문을 통해 “고 집멸도 사생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군생활도 힘들고 괴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군병자가 되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교통통신원불자회는 이날 법회에서 불서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제 4땅굴과 을지전망대를 관람했다.

수심사 신도회 총무 한상국 상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법당 보수도 업무를 못내고 있는데 위문을 받으니 신심이 난다”고 기뻐했다. 김두식 기자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에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면서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 연결.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 남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장거저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중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조계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양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DVSS** 부처님의 소중한 사찰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CCTV, DVR 설치 및 판매 전문

DVR+모니터+주·야간적외선카메라2대 = 200만원, 카메라한대추가시 + 40만

“보안은 예방”

**CCTV**

3대 만족  
품질, 가격, 서비스

사업내용  
• CCTV 판매 및 설치 공사  
• 청소, 경비용역  
• 방범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

시공사찰  
• 대성사 • 송림사  
• 보현사 • 선운사  
• 도솔암 • 계암사  
• 안국사

A1 에이원  
현대불교신문사대전, 충북지사 지사장 혜철 합장  
(주)에이원시스템 전화 043)732-5560/011-9422-8453

한국불교박람회 (무스번호 3동 N8호) 제품 다수 전시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가족만 **行** 행 **靴** 화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가벼움, 따뜻함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방한용 털신

블록 마찰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동) 발바닥 무릎받기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주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승낙하세요